



JARA NEWS

August 2018, No. 126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JARA도 회원 지원 업무에 착수, 각사의 대응 어려운 사안을 서포트

JARA(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는, '2018년 7월 호우'의 대응책으로 회원에 대한 업무 지원에 착수한다. 앞으로, 인수할 차량이 증대할 가능성도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각사의 개별 대응으로서는 어려운 사안 등에 대해 그룹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다.

9 일에는 회원의 피해 상황을 확인. 일부 회원에게서 사무실의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지만 인적 피해는 없었다. 현재, 스태프를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재해는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에서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향후는 “앞으로 발생할 안전에 대해 어떠한 체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준비하겠다.”(기타지마 사장)라고 말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2일)

JARA 그룹 생산 관리자를 위한 연수 부품 품질과 생산 흐름

JARA 그룹(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회장)는 6월 20~22일까지의 3일간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자동차연구소 히가시후지센터(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 東富士センター)에서 ‘생산 관리자 스텝1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10명은, 재활용 부품의 품질 관리와 생산, 차량의 수리 경력의 분별법 등을 배워, 스킬업으로 이어갔다.

연수회 첫날은, 기본이 되는 JARA가 정한 재활용 부품의 상품 품질, 사용 후 자동차의 입고부터 부품 생산까지의 업무에 관한 일련의 흐름의 효율화와 프런트 업무에 대해 학습했다. 이틀째는, 외판 부품의 상품 등록에 관해, 상처와 흠이나 보수 이력 등 형상 확인을 위한 포인트에 대해 해설이 있었다. 또한, 차량의 수리보수 이력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제 차량을 이용한 수리보수 이력의 확인 등을 하여, 지식 심화에 노력했다. 마지막 날은 시험을 거쳐,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연수회는, 그룹에 속한 회원 사업자에게 수리보수 이력이 있는 차량이 입고가 되었을 경우, 올바른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여 재활용 부품의 유통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체 정비 사업자의 재활용 부품에 대한 요망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로 외판 부품에 대해 정확한 부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회원 사업자가, 수리보수 이력이 있는 사용 후 자동차에 대해 부품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재활용 부품의 등록 개수 확대로 이어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5일)

JARA, 차세대 차 세미나 개최.

JARA(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12, 13일 이틀간,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의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자동차연구소(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自動車研究所)에서 ‘JARA 차세대 자동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료전지 자동차(FCV)나 전기 자동차(EV), 하이브리드차(HV) 등 차세대 자동차의 주행 시승을 추가한 차세대 세미나의 제1탄.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 상황과 선진 안전 기술인 에이밍(aiming, 기능 조정) 작업, 선진 안전 자동차(ASV)의 메인テナンス 작업 등에 대한 강습도 열렸으며, 10명의 참가자는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작업에 필요한 노하우 습득에 노력했다.

이 세미나는 ASV와 첨단 안전 기술에 대한 정비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많은 부품 생산으로 이어감과 더불어, JARA 회원의

고객인 정비 공장을 향해 제안 판매를 하기 위한 스킬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첫날은 차세대 자동차의 기초 지식으로 차량의 종류와 특징, 정부가 제안하는 로드맵의 해설 등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HV의 보급이 진행되는 한편, EV는 보급 상황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단지 미래에 FCV나 EV의 시대가 도래한 경우, 재활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엔진 생산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강사)라는 것 등을 해설하였다. 또한, 수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각 업계의 대처 상황 등도 소개했다.

실내 강습 후에는 실제 자동차를 이용한 주행 테스트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토요타 자동차 ‘미라이’, ‘프리우스 PHV’, 닛산 자동차의 ‘리프’, 혼다의 ‘피트 HV’, 미쓰비시 자동차의 ‘아웃랜더 PHEV’를 시승. 각 차량의 동력 성능과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등 각종 시스템의 작동 상황을 체험했다.

이틀째는 ASV에 관련된 실습으로, 선진 안전 기술의 경지 디바이스로 사용되는 카메라와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에이밍 작업을 강습. 저속 자동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는 실수에 대한 방지 장치, 주차 지원 장치 등을 작동 체험도 하였다. 또한 차세대 자동차가 입고된 경우에 필요해지는 브레이크 액 교환에 대해, 올바른 작업 순서 등을 해설하였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9일)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9일)



행정 전체가 조기 부흥을 지원한다(이미지)

국토교통성, 서일본 호우에 특별 조치 여객 수송과 차검 관련 등

국토교통성은 서일본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자동차 관련 허가 등에서 9개의 유효 기간 연장 조치를 한다. 이 가운데에는, 도로운송법의 여객 수송 관계 이외에도, 도로운송차량법의 회송 운행 허가, 한정차검증과 보안기준 적합증 등의 교부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단, 차검(車檢)의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일련의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관련된 행정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의 부흥을 지원한다.

차량법 관계에서는, 피해 지역을 운행 경로로 포함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임시 운행의 허가를 받은 차량의 운행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회송 허가에 관해서는 피해 지역에 주된 영업을 가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사용자 차검 등에서 차량을 차량 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차검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행되는 한정차검증에 대해서는, 각 운수 지국장이 공시하는 새로운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교부한다. 또한, 보안기준 적합증과 동 적합표장에 대해서도 한정차검증과 같이 취급한다.

자동차등록령 관계에서는, 재해 발생 전 3개월 이내에 작성된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시하는 신청서의 제출과 등록 사항 등 증명서의 교부 청구 기한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로운송법의 관계에서는, 일반대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로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자의 등록에서도 같은 기한일까지 연장한다. 더욱, 택시업무 적정화 특별조치법에서는, 등록 실시 기관의 등록에 대해서도 같은 기한일까지 연장한다.

6월 28일 이후에 변경 신고 등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했을 경우, 그 이유가 이

번 호후 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20일)

JARC, 4~6월 ELV 인수 대수는 3.1% 증가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터(JARC)가 집계한 2018년 제1사분기(4~6월)에 사용 후 자동차(ELV)의 인수 대수에 대한 실적(확보(確報))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88만 2천 대였다. 고철 가격이 약간 하락 추세이긴 하였으나 고가 유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경차를 중심으로 하는 견조한 신차 판매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실적을 확보했다. JARC는 “전년도부터 증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9일)

스캔 툴 보조금, 판금·용품 업계도 대상

■정비사 재적이 조건, 이용 확대에 기대
국토교통성은,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는 스캔 툴 보조금에서, 자동차 분해 정비 사업자와 우량 자동차 정비 사업자를 포함 시키고 더불어 ‘정비사가 재적하며, 점검 정비 작업을 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보조 대상으로 추가했다. 법정 점검이나 차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일이나 배터리 교환 등을 실시하는 차체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용품점, 타이어 판매점, 전장 정비 사업자 등도 보조 대상으로 확산하였

다.
국토교통성은 2013년도부터 스캔 툴 보조금을 시작하여, 매년 2억 엔 정도의 예산을 충당해 왔다. 올해의 공모 기간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보조 상한액은 1사업장당 15만 엔. 신청액이나 보조금의 교부 상황은 웹 사이트에서 매일 갱신할 예정이다. 보조를 받은 사업자는 20대 이상으로 스캔 툴을 사용하여 진단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는 차량의 점검 정비에 스캔 툴이 필요 불가결해졌기 때문이지만, 보조 대상의 확대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 OBD, 차제식 고장 진단 장치(車載式故障診斷裝置)) 검사를 내다 보고 판단한 것”(자동차국 정비과)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OBD를 활용한 검사 제도를 시작할 예정. 검사에는 특정의 고장 코드(DTC)를 판독하는 ‘법정 스캔 툴’이 필요하며, 차검을 업종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에게 있어 스캔 툴은 필수적인 장비이다.

보조 대상의 확대에 정비 기기 업계도 기대감을 갖는다. (주)인터서포트(Inter Support Co., Ltd)는 “스캔 툴이 필요하지만 보조 대상이 되지 않아, 구입을 하지 못한 사업자가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스캔

툴의 새로운 확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한다. 대형 기계 공구 상사도 “스캔 툴이 있는 공장의 업데이트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차체 정비 사업자도 스캔 툴이 필수적이 되므로 폭넓게 제공하고 싶다.”라고 의욕을 내비치었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11일)



OBD 차검에 스캔 툴은 필수적이 된다(이미지)

C0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6월

2,281 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Asian Automotive Environmental Forum

11th in India

From Wed. 31st October to Fri. 2nd November 2018



Conference theme:

**AUTOMOTIVE RECYCLING IN INDIA
PATHWAY TO THE FUTURE
– TOWARD SUSTAINABLE SOCIETY –**

Holiday Inn New Delhi International Airport

Registration Fee : US\$200 per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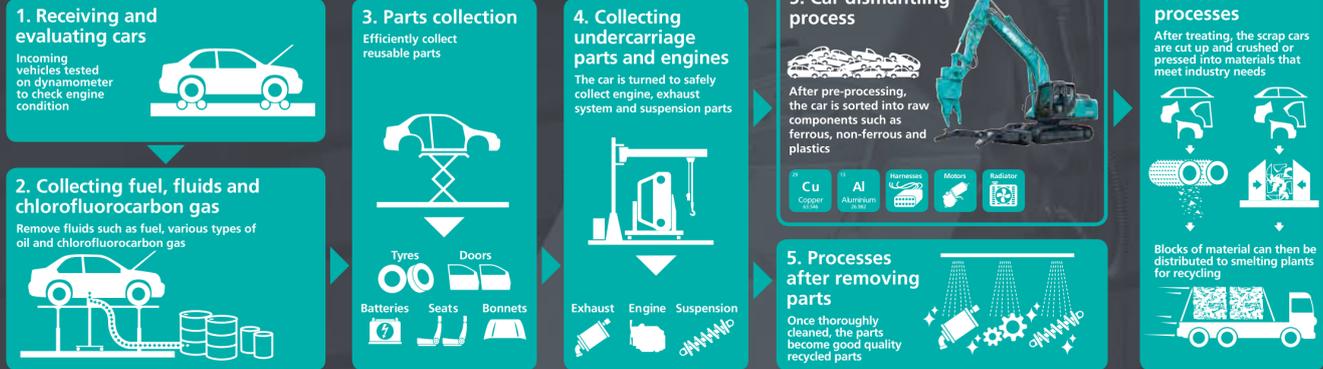


Contact : jara@npo-jara.org(Japan Automotive Recyclers Association)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s)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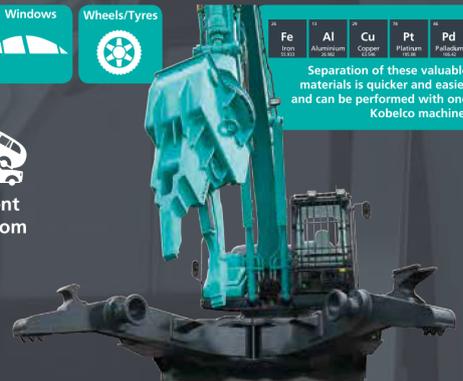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Fe Iron	Al Aluminum	Cu Copper	Pt Platinum	Pd Palladium
------------	----------------	--------------	----------------	-----------------

Separation of these valuable materials is quicker and easier and can be performed with one Kobelco machine.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